

2016년 對中 수출 평가와 2017년 전망



CONTENTS

목 차

요 약

I. '16년 대중수출 평가

- 1 | 1. 대중수출 동향
- 8 | 2. 대중수출 둔화 원인

II. '17년 대중수출 여건

- 13 | 1. 경기 요인 : 산업 및 소비 수요
- 15 | 2. 수출구조 요인 : 글로벌 수입수요, GVC 변화
- 19 | 3. 환경·제도 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III. '17년 대중수출 전망

- 26 | 1. 종합 전망
- 28 | 2. 업종별 전망

IV. 시사점과 대중수출 확대 방안

[요약]

□ (수출둔화) 대중수출 3년 연속 감소에 이어 '16년 △9.3로 급감

* 대중수출증가율(%) : ('12년) 0.1 → ('14년)-0.4 → ('15년) -5.6 → ('16년) -9.3

○ 월별로는 연초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 시현중

* 월별 수출증가율('16년, %) : (1월)-21.5% → (7월) -9.4 → (11월) 0.4 → (12월) 9.7

○ 한국의 중국 중심 수출 의존도는 지속

* 중국 수출의존도(%) : ('15년) 26.0 → ('16년) 25.1; 홍콩 포함시 31.3 → 31.7

○ 상대적 수출성과(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양호

*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1위 지속(%) : ('15년) 10.6 → ('16년) 10.0

□ (둔화 원인) △중국경기 둔화,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원유가격 하락, △글로벌 공급라인 변화 및 우회수출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

○ (중국경기 둔화) GDP 성장율 '15년 6.9% → '16년 1~3Q 6.7%로 하락하면서 주요 공산품 수요 둔화

○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 중국 수출 감소

* 세계수입증가율(%) : ('12년) 1.9 → ('14년) 0.3 → ('15년) -12.0

* 중국수출증가율(%) : ('12년) 7.9 → ('14년) 6.0 → ('16년 1~9월) -6.8

○ (원유가격 하락) 국제유가 급락 → 주력 석유*화학) 단가 하락

* (두바이유) : ('14.1월) 106.1달러 → ('16.1월) 26.9달러, 1년 반 사이 1/4로 하락

* 수출단가 하락율('14년~'16년, %) : 파라자일렌 -41.2, 스티렌 -37.4, 프로필렌 -60.6

*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비중(%) : ('14년) 20.0 → ('15년) 15.7 → ('16년 1~11월) 17.0

○ (GVC 변화) 생산거점이전 및 우회수출로 관련 품목 대중수출 감소

* 올해 1~9월 대중수출 12.1% 감소한 반면 對베트남 수출 12.2% 증가

· * 대중수출 비중 1.0%p(26.0→25.0) 감소한 반면 對베트남 비중 1.2%p(5.3→6.5) 확대

* 홍콩경유 대중 우회수출 역시 대중수출 감소의 한 원인

· 대홍콩 수출의 80% 가량은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수출(홍콩무역국)

· 올해 1~11월 대중수출 10.9% 감소한 반면 對홍콩 수출 7.2% 증가

□ (수출전망) 수출 급락세 완화 전망

○ (근거) 3대 대중수출 요인(중국경기, 수출구조, 환경·제도) 종합

구 분			전망 및 근거
종합 전망			○ 대중수출 급락세 완화 - (호조) 안정 성장세 및 내수확대 등 신성장전략 추진, 유가 안정, 한중 FTA 효과 확대, 기저효과 등 - (부진) 글로벌 수요 둔화, 밸류체인 변화→중국의 수출 수요 둔화, 중미 갈등 가능성, 돌발 이슈 등
요인	주요변수	평가	내 용
중국 경기	○ 성장율 ○ 산업생산 ○ 소비수요 ○ 투자	다소양호 다소양호 양호 다소양호	○ '17년 6.5% 성장(전망), 중장기(13·5규획) 6.5%이상 목표설정 ○ 인터넷+, 중국제조 2025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따른 생산 확대 ○ 내수 확대, 스마트, 안전, 환경, 웰빙 분야 및 서비스 수요 증대 ○ 신형도시화 및 지역발전계획*, '일대일로'등 프로젝트 시장 확대
수출 구조	○ 중국의수출 ○ 현지조달 ○ GVC변화	다소불리 불리 다소불리	○ 글로벌 무역 침체, 중국 무역 둔화 ○ 차이나 인사이드 확대 ○ 글로벌생산 역할 감소(GVC 변화) : 생산거점 동남아 이전
환경 · 제도	○ 통상환경 ○ 국제유가 ○ 元환율	혼재 유리 중립	○ 통상환경 : 중미 통상관계, 한중 FTA 효과 확대 ○ 국제유가 : 안정적 중저유가 유지로 단가하락 압력 감소 ○ 위안화 절하로 中 불안정성 확대되나 수출영향은 제한적

□ (업종별 전망) 산업용 원자재, 기계설비, 소비재 등 양호, 운송설비 부진

구 분	업 종*	BEC	2016(1~11월)		수출 전망**
			구성비	수출증가율	
1차산품	미가공 산업원자재	21	0.9	-4.3	중립 : 소재경쟁력, FTA효과
산업용 원자재	가공된 산업원자재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등	22	26.3	-4.3	다소 양호 (기대) 단가안정 수요 확대, FTA효과 (우려) 차이나 인사이드 확대
부품 · 부분품	부품·부분품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	42	45.6	-10.0	중립 (기대) 수요 확대; (우려) GVC·자체생산 확대, 글로벌 수요 둔화
	부품·부분품 (운송장비용)	53	4.5	3.7	중립 (기대) 수요 일부 확대; (우려) 차이나 인 사이드 확대
자본재	기계·설비 (운송장비 제외)	41	19.1	-18.2	다소 양호 (기대) 수요 확대, FTA효과; (우려) 중국 자체조달 확대
소비재	미가공 식음료	112	0.1	43.4	양호 (기대) 수요 확대, FTA효과; (우려) 통상 환경(비관세장벽) 불안정 기능(일부)
	가공 식음료	122	0.5	15.5	
	승용차	51	0.1	-88.7	부진 : 현지생산 확대
	내구소비재	61	0.4	-18.8	양호 (기대) 수요 확대, FTA효과; (우려) 통상환 경(비관세장벽) 불안정 기능(일부)
	반내구소비재	62	0.7	-1.3	
비내구소비재	63	1.6	11.1		

□ 시사점과 대중수출 확대 방안

○ (업종) 中 산업정책 환경 변화 속, 부상하는 유망품목 발굴 및 품목 다변화

- 대중수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고급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T 부품소재, 첨단기자재, 환경설비 등 수요증가, 이에 따른 품목 다변화 노력 필요

- 무역구조, 경제동향(산업, 시장, 정책) 감안시 유망 업종

분야	업종
‘인터넷플러스(+)’ 관련 업종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신성장산업 관련 부품·설비	신에너지, 생명, 녹색, 농업, 첨단장비 등
소비재	스마트, 안전, 환경, 웰빙 분야, 유아 관련 제품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프라 및 장비·기자재, 소재, 소프트웨어 등

○ (방법) 유망분야별 수출 및 진출 전략 다변화

- (전자상거래)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진출 방법의 다양한 혼용·융합 전략* 발굴

* 예) 일반무역으로 수출후 중국내 온라인 판매하는 방안, 온-오프라인 혼용 (O2O) 등

- (FTA 활용) 발효 3년차로 관세철폐 효과가 더욱 커지고, 활용 전략도 더욱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됨

*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 원산지효과 활용한 생산/공급 네트워크 조정 등

- (韓中 전략적 협력) 신흥전략산업*, 프로젝트 업종의 특성을 감안 전략적 파트너링, PPP(민관협력 프로젝트), 한중 FTA 협력조항 활용 등 모색

* ‘중국제조 2025’계획내 10대 육성대상 업종 등

* ‘일대일로’ 계획, 수도권개발계획, ‘창장경제벨트계획’, ‘동북진흥계획’ 등

○ (리스크관리) 통상환경 변화 및 돌발상황 대응능력 강화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중미관계 및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한국 대선과 관련한 정책변수 발생 가능성 대비

-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한중 협력기반 강화와 ‘국가브랜드’ 제고가 중요

I. '16년 대중수출 평가

1. 대중수출 동향

□ (수출둔화) 대중수출 3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16년 Δ 9.3%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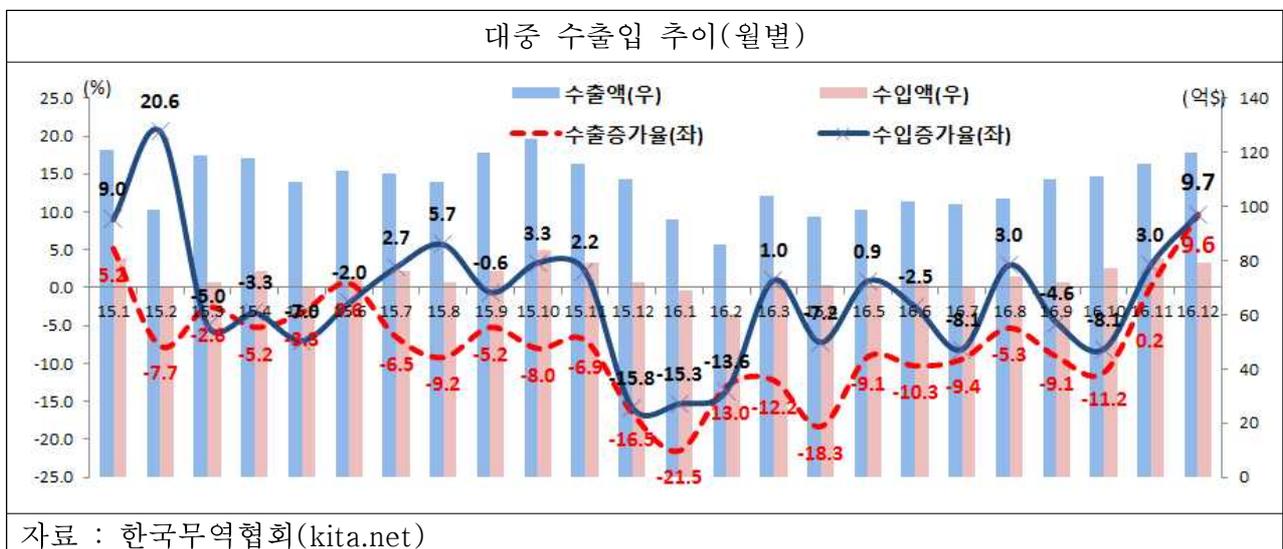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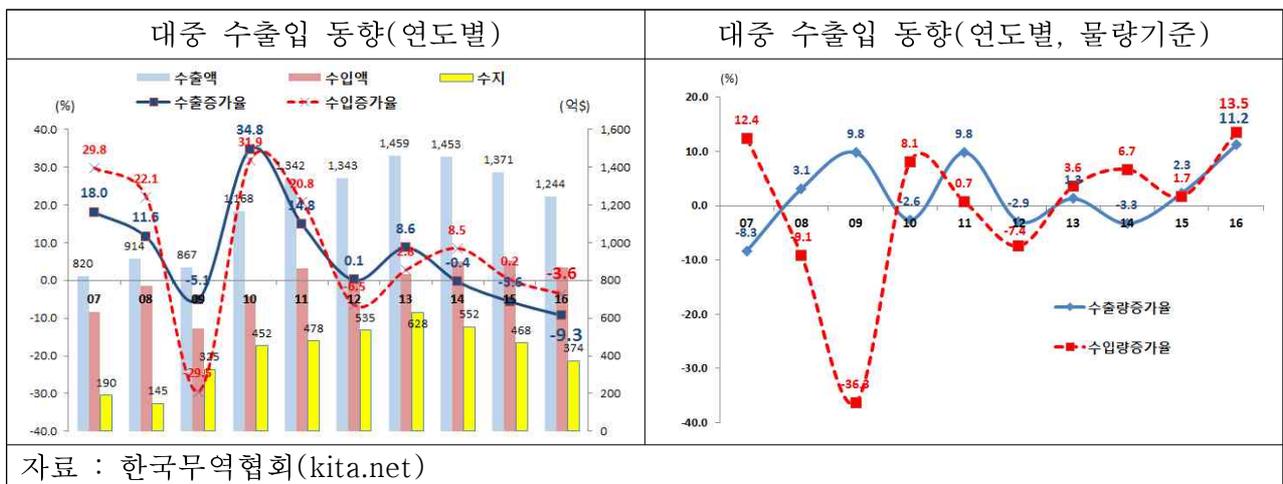
* 대중수출증가율(%) : ('12년) 0.1 \rightarrow ('14년)-0.4 \rightarrow ('15년) -5.6 \rightarrow ('16년(1~11월) -10.9

○ 다만, 물량기준으로는 최근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단가 하락이 최근 대중수출 둔화의 한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남

* 물량기준 대중수출 증가율(%) : \rightarrow ('14년) -3.3 \rightarrow ('15년) 2.3 \rightarrow ('16년) 13.5

○ 월별로는 연초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중

* 월별 수출증가율('16년, %) : (1월)-21.5% \rightarrow (7월) -9.4 \rightarrow (11월) 3.0 \rightarrow (12월)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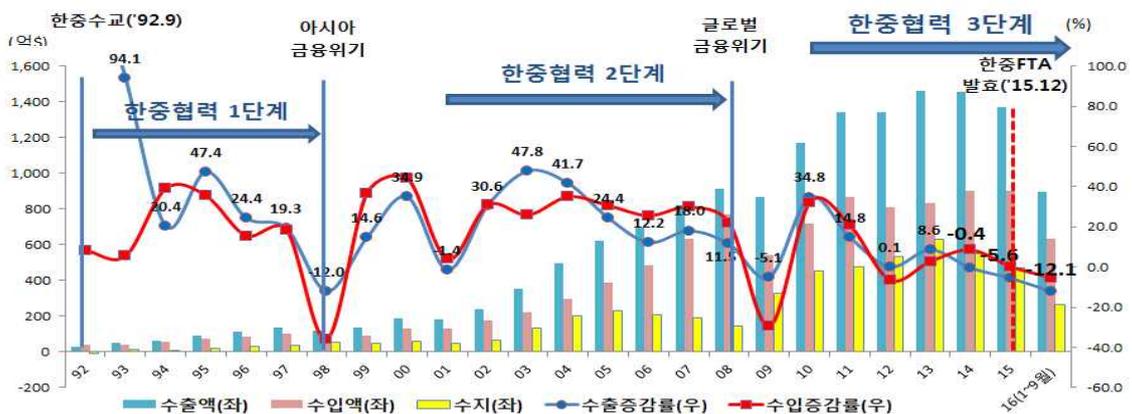
□ 한중 수교 이후 최초의 대중수출 둔화속 조정기 진입

- 최근의 대중수출 둔화는 '92년 수교 이후 최초의 현상으로 한중 무역관계가 새로운 단계(3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
- 대중수출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증가 속도 둔화 뿐아니라 수출구조도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

☞ 한중무역의 흐름

□ 한중 수교('92년) 이후 한중 무역은 급성장하는 가운데 대략 2번의 발전단계를 거쳤으며 현재는 3단계로 무역 둔화와 구조조정이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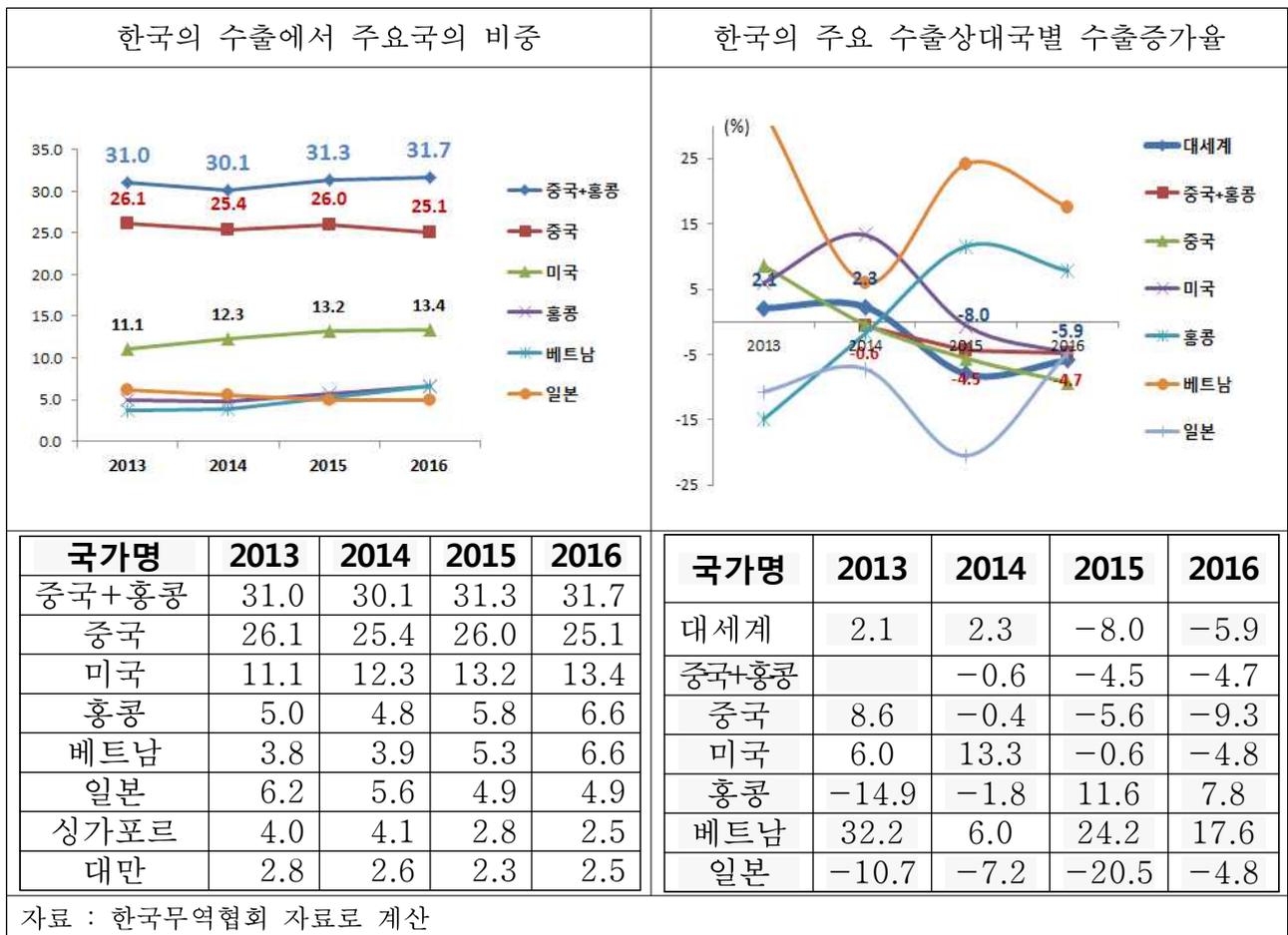
- (1단계) 수교~아시아금융위기(1992~2008년) : 중소기업에 의한 노동집약형 가공 무역이 산동성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어난 시기
 - (2단계) 중국의 WTO 가입 ~ 글로벌 금융위기(2001~2008년) : 대기업 주도하에 가공무역과 내수개척을 동시에 추진하고, 지역적으로는 산동성에서 중국의 산업중심지(화동지역, 수도권지역)로 무역·투자가 확산된 시기
 - (3단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부양 이후 현재(2012~2016년(현재)) 대중 수출입이 둔화되면서 구조면에서 조정이 진행되는 단계
 - 2012년 대중수출 증가율 한자리수 증가율 진입, 2014년 감소세 전환
- <한국의 대중무역 동향>



* 자료 : 관세청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대중수출 의존도) 높은 대중수출 의존도는 지속

- 대중수출 둔화에 따라 우리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26.0%에서 '16년 25.1%로 전년대비 0.9%p 하락
- 그러나 대홍콩 수출*을 합산할 경우 대중수출이 우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대홍콩 수출 합산한 대중수출 증가율은 △4.7%로 우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31.3%에서 '16년 31.7%로 0.4%p 증가했음
 - * 우리의 수출에서 7.8%를 차지하는 대홍콩 수출의 80% 가량은 대중국 우회수출임



□ (상대적 수출성과) 상대적 대중수출 성과는 양호

○ ‘13년 이후 4년 연속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고, ‘16년에도 높은 점유율 유지중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2013년 9.2%로 1위 자리에 오른 뒤 높은 점유율 지속

*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 (‘14년) 9.7 → (‘15년) 10.6 → (‘16년) 10.0

○ 월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중반기의 점유율 하락이 지속

* 월별 점유율 : (5월) 10.2% → (7월) 10.1 → (10월) 10.6 → (12월) 9.6

○ (주요국과 비교) 주요 대중수출국(중국의 5대 수입상대국)* 중 일본과 독일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소폭 상승, 미국과 대만은 보합 및 부진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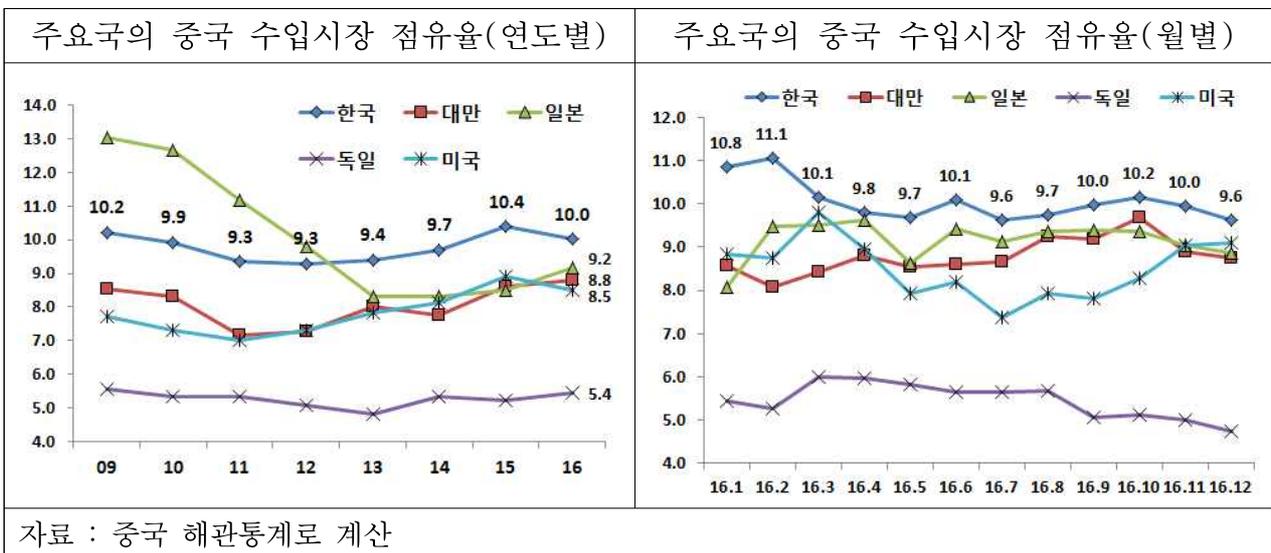
* 수입시장 점유율(‘16년) : 한국(10.0%)→일본(9.2)→대만(8.8)→미국(8.5)→독일(5.4)

- 점유율 2위국인 일본은 ‘13~14년의 하락세에서 꾸준히 회복중

- 3위 대만 역시 ‘14년의 하락세에서 꾸준히 회복중

- 4위 미국은 회복세 보여 왔으나 올해 들어 다소 하락

- 5위 독일도 완만한 점유율 상승세 지속



□ (수출구조) 중간재 중심 수출구성 지속, 중간재 내부 수출구성 급변

○ 대중수출 가운데 중간재 77.4%, 최종재 21.7%로 중간재 중심구조 점진적으로 심화중

* 중간재 비중(%) : (12년) 73.8 → (14년)76.6 → (16년 1~10월) 77.4

○ 그러나 중간재 내에서 반제품(석유화학, 철강 등)과 부품·부분품(전자부품 등)의 비중은 급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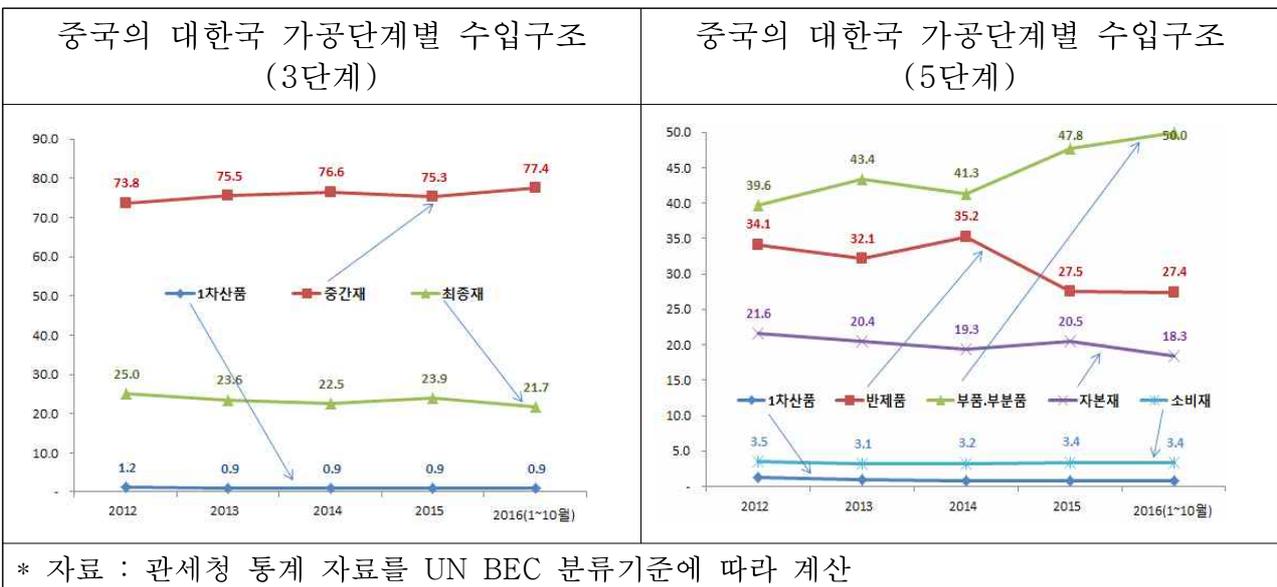
* 부품·부분품 비중 '14년 41.3%에서 '16 1~10월 50.0%로 2년 사이에 8.7%p 늘어난 반면, 반제품은 같은 기간 35.2% → 27.4%로 7.8%p나 감소

- 같은 중간재 내에서 반제품(석유화학, 철강)의 비중이 급락한 이유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 아직 절대 비중이 크진 않으나 소비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 중

* 소비재의 비중 '13년 3.1%에서 '16년 1~10월 3.4%로 0.3%p 증가

- 소비재는 일반무역이 아닌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역직구)나 '비공식적 수단을 통한 수출'이 매우 많음을 감안하면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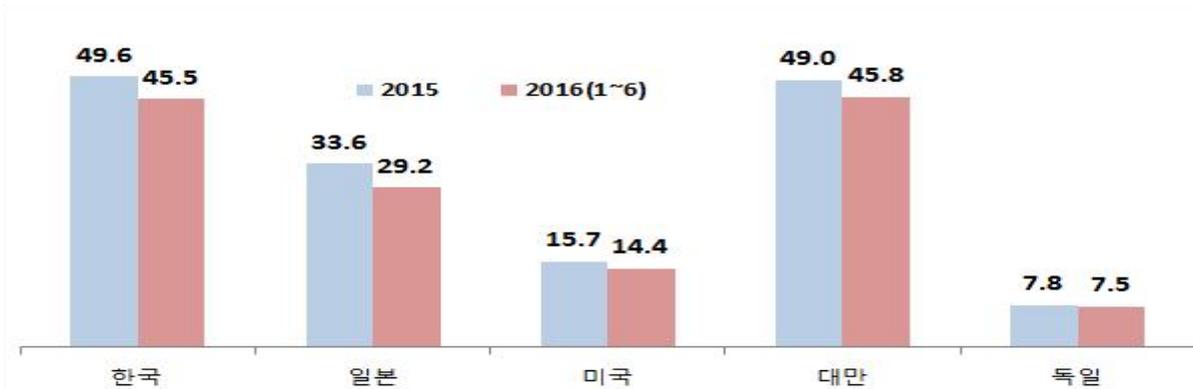


□ (무역형태별 성과) 가공무역* 수출 비중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중국내 가공생산을 위해 원부자재 형태로 중국에 수출되는 물품을 가리키며, 가공무역이 많다는 것은 중국을 가공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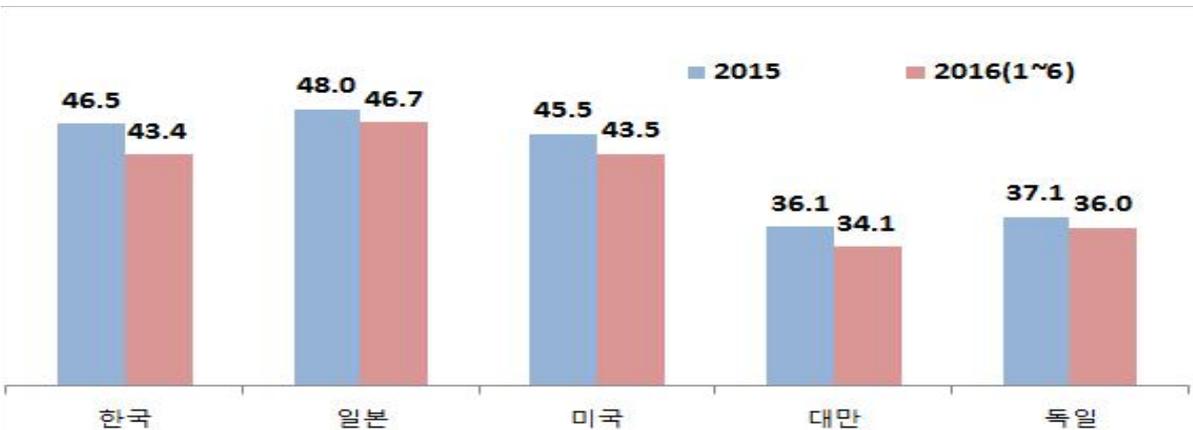
-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지난해의 49.6%에서 올해 상반기 45.5%로 4.1%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대중수출 상위 5개국 가운데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는 대만 (45.8%) → 한국(45.5%) → 일본(29.2%) → 미국(14.4%) → 독일 (7.5%) 순임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의 비중>



* 자료 : 중국해관통계서비스센터

<주요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



* 자료 : 중국해관통계서비스센터

□ (품목별 수출성과) 반제품 수출 부진과 부품·부분품 및 소비재 확대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2년 연속 부진한 반면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장비, 소비재(화장품)의 수출이 양호하게 나타남

- * 수출부진품목(%) : 합성수지('15년 -16.5 → '16년 1~6월 -13.9), 석유제품 (-36.9 → -0.8), 기초유분(-38.8 → -17.8), 기타 석유화학제품(-36.9 → -0.8) 등
- * 수출 양호품목(%) : 플라스틱제품(-0.7→5.2), 정밀화학원료(8.3→ 12.0), 비누·화장품(98.9→34.7), 기타기계류(17.3→2.7), 계측제어분석기(5.6→12.3)

<주요 품목별 대중수출 성과>

순번	품목명	코드 (Ⅱ)	2015년			2016년 (1~11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구성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구성비
	총계		1,371.2	-5.6	100.0	1,124.0	-10.9	100.0
1	반도체	831	278.2	6.4	20.3	220.1	-14.5	19.6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36	220.8	-1.9	16.1	168.8	-17.8	15.0
3	무선통신기기	812	77.1	21.3	5.6	56.0	-22.5	5.0
4	합성수지	214	63.2	-16.5	4.6	54.8	-5.8	4.9
5	석유화학중간원료	212	57.9	-13.9	4.2	52.8	0.7	4.7
6	자동차부품	742	58.8	-3.5	4.3	49.0	-7.9	4.4
7	석유제품	133	44.2	-36.9	3.2	42.3	2.9	3.8
8	컴퓨터	813	33.0	6.3	2.4	27.7	-8.2	2.5
9	플라스틱 제품	310	27.0	-0.7	2.0	25.9	4.9	2.3
10	철강관	613	26.8	-23.2	2.0	25.5	4.7	2.3
11	기구부품	834	27.6	-14.4	2.0	23.3	-8.5	2.1
12	기초유분	211	25.8	-38.8	1.9	22.9	-4.3	2.0
13	광학기기	715	22.5	-10.2	1.6	19.6	-5.6	1.7
14	정밀화학원료	228	16.7	8.3	1.2	17.8	17.5	1.6
15	기타기계류	790	16.6	17.3	1.2	15.3	2.2	1.4
16	계측제어분석기	815	14.4	5.6	1.1	15.2	17.6	1.4
17	비누치약및화장품	227	12.2	98.9	0.9	14.8	36.2	1.3
18	원동기및펌프	711	14.4	-1.8	1.1	12.4	-2.9	1.1
19	반도체제조용장비	732	18.4	27.9	1.3	12.4	-25.3	1.1
20	동제품	622	15.8	-2.7	1.1	12.1	-17.7	1.1
	소계		1,071.4		78.1	888.8		79.1

* 진한 글씨는 '16년 1~11월 기준 수출이 증가한 품목

* 자료 : 관세청

2. 대중수출 둔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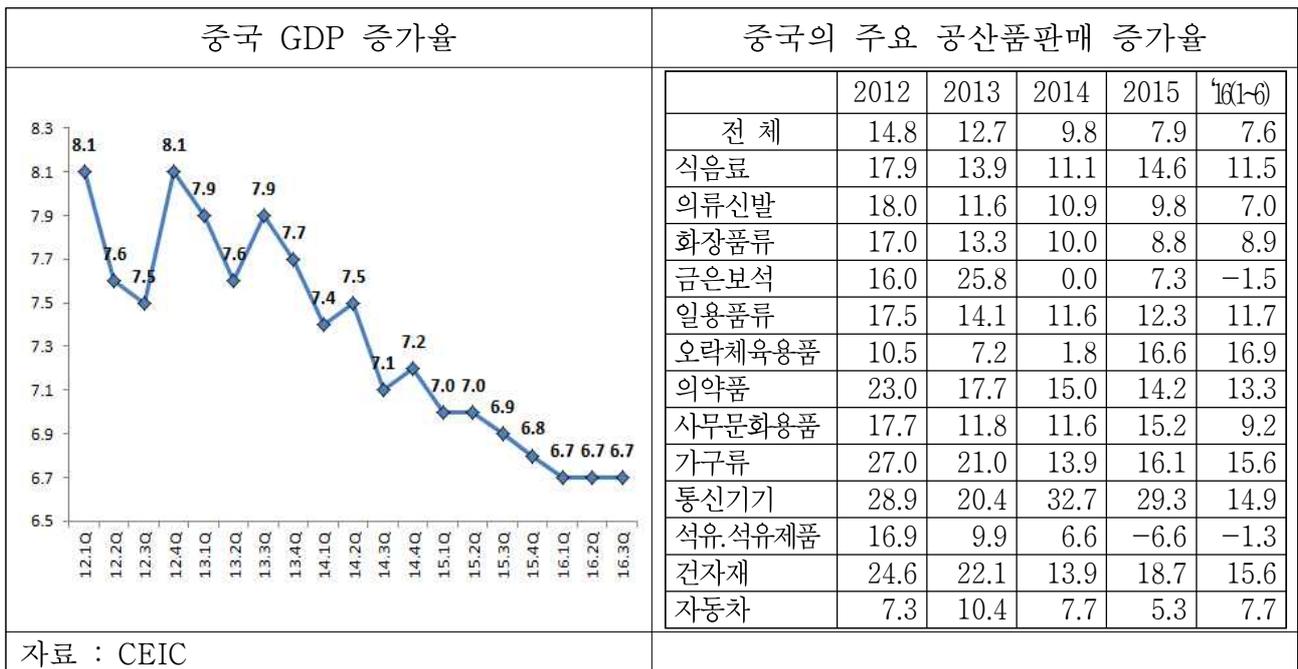
1) 중국의 경기 둔화

□ ‘신창타이(新常态, 뉴 노멀)’ 국면 진행중인 가운데 2년째 7% 미만 성장을 기록

- (대중수출과 중국 경기) 한국 대중수출의 절반 가량은 중국 내수용으로 공급되며 중국 내수용 수출은 중국의 경기 동향에 직접 영향을 받음
* 한국 대중 가공수출 비중(%) : ('15년) 49.5, ('16년) 45.6

- (성장을 둔화) '12년 8% 이하 증가율(7.9%)로 떨어진 뒤 '15년 7% 이하(6.9%)로 하락하고, '16년 6.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성장을 둔화는 공산품 판매 둔화와 수입수요 둔화로 이어짐
* 주요 공산품 판매 증가율(%) : 통신기기('15년)29.3→('16년 상반기)14.9), 의류신발(9.8→7.0), 사무문화용품(15.2→9.2)



2)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성장둔화와 수입 둔화가 중국의 수출 둔화로 연결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의 효과가 약화된 '12년 이후 글로벌 수입증가율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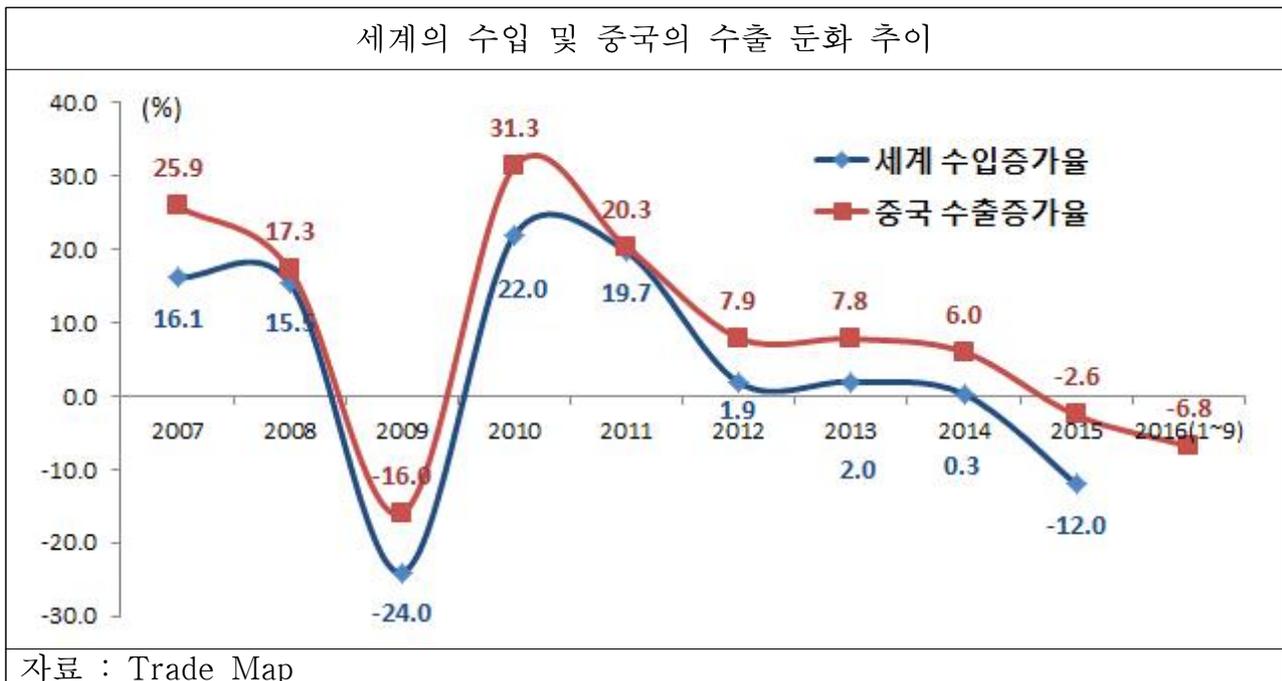
* 세계수입증가율(%) : ('12년) 1.9 → ('14년) 0.3 → ('15년) -12.0

○ 이에 따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증가율 역시 '12년 이후 둔화세 전환

* 중국수출증가율(%) : ('12년) 7.9 → ('14년) 6.0 → ('16년 1~9월) -6.8

□ 우리의 대중수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중국내 가공생산인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둔화는 우리의 대중수출 둔화로 직결

* 한국 대중 가공수출 비중(%) : ('15년) 49.5, ('16년) 45.6



3) 글로벌 유가 하락

□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분야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단가 급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대중수출 하락으로 직결

○ 국제유가 2014년 중반 이후 1년 반 사이에 1/4 수준으로 급락

* 국제유가 하락(달러/배럴, 두바이유기준) : ('14.1월) 106.1 → ('16.1월) 26.9

○ 이에 따라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단가 2년 사이 30~60% 급락

* 주요 수출품 단가 하락률('14년~'16년, %) : 파라자일렌 -41.2, 스티렌 -37.4, 프로필렌 -60.6, 폴리프로필렌 -27.8, ABS -27.4, 기타석유제품 -49.1

○ 한국의 대중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급락

* 대중수출에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비중(%) : ('14년) 20.0 → ('15년) 15.7 → ('16년 1~11월) 17.0

국제 유가 동향(배럴, 달러)		중국의 대한국 주요 석유·석유화학제품 수입 단가 변화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목명</th> <th rowspan="2">HS</th> <th rowspan="2">단위</th> <th colspan="3">단가(달러)</th> <th rowspan="2">단가변화 ('14~'16, %)</th> </tr> <tr> <th>2014</th> <th>2015</th> <th>2016</th> </tr> </thead> <tbody> <tr> <td>파라자일렌</td> <td>290243</td> <td>T</td> <td>1,323</td> <td>855</td> <td>778</td> <td>-41.2</td> </tr> <tr> <td>기타석유제품</td> <td>271019</td> <td>T</td> <td>915</td> <td>583</td> <td>466</td> <td>-49.1</td> </tr> <tr> <td>경질석유제품</td> <td>271012</td> <td>T</td> <td>1,000</td> <td>554</td> <td>426</td> <td>-57.4</td> </tr> <tr> <td>스티렌</td> <td>290250</td> <td>T</td> <td>1,635</td> <td>1,176</td> <td>1,023</td> <td>-37.4</td> </tr> <tr> <td>프로필렌</td> <td>290122</td> <td>T</td> <td>1,467</td> <td>941</td> <td>725</td> <td>-50.5</td> </tr> <tr> <td>폴리프로필렌</td> <td>390210</td> <td>T</td> <td>1,679</td> <td>1,419</td> <td>1,213</td> <td>-27.8</td> </tr> <tr> <td>ABS</td> <td>390330</td> <td>T</td> <td>2,160</td> <td>1,873</td> <td>1,569</td> <td>-27.4</td> </tr> <tr> <td>석유역청</td> <td>271320</td> <td>T</td> <td>560</td> <td>383</td> <td>206</td> <td>-63.3</td> </tr> <tr> <td>폴타르증류품</td> <td>270799</td> <td>T</td> <td>825</td> <td>568</td> <td>413</td> <td>-50.0</td> </tr> <tr> <td>에틸렌</td> <td>290121</td> <td>T</td> <td>1,516</td> <td>1,125</td> <td>1,047</td> <td>-30.9</td> </tr> </tbody> </table>					품목명	HS	단위	단가(달러)			단가변화 ('14~'16, %)	2014	2015	2016	파라자일렌	290243	T	1,323	855	778	-41.2	기타석유제품	271019	T	915	583	466	-49.1	경질석유제품	271012	T	1,000	554	426	-57.4	스티렌	290250	T	1,635	1,176	1,023	-37.4	프로필렌	290122	T	1,467	941	725	-50.5	폴리프로필렌	390210	T	1,679	1,419	1,213	-27.8	ABS	390330	T	2,160	1,873	1,569	-27.4	석유역청	271320	T	560	383	206	-63.3	폴타르증류품	270799	T	825	568	413	-50.0	에틸렌	290121	T	1,516	1,125	1,047	-30.9
품목명	HS	단위	단가(달러)			단가변화 ('14~'16, %)																																																																																
			2014	2015	2016																																																																																	
파라자일렌	290243	T	1,323	855	778	-41.2																																																																																
기타석유제품	271019	T	915	583	466	-49.1																																																																																
경질석유제품	271012	T	1,000	554	426	-57.4																																																																																
스티렌	290250	T	1,635	1,176	1,023	-37.4																																																																																
프로필렌	290122	T	1,467	941	725	-50.5																																																																																
폴리프로필렌	390210	T	1,679	1,419	1,213	-27.8																																																																																
ABS	390330	T	2,160	1,873	1,569	-27.4																																																																																
석유역청	271320	T	560	383	206	-63.3																																																																																
폴타르증류품	270799	T	825	568	413	-50.0																																																																																
에틸렌	290121	T	1,516	1,125	1,047	-30.9																																																																																
자료 : Petronet		자료 : GTA																																																																																				

4) 글로벌 공급라인 변화 및 우회수출 확대

□ 해외 생산거점 조정(밸류체인 변화) 및 대중 우회수출 확대에 관련 품목의 대중수출 감소

○ 우리 기업의 생산거점 베트남 이전에 따라 관련 품목의 대중수출이 감소하고 대베트남 수출은 확대

- * 올해 1~9월 대중수출 증가율 -12.1%인 반면 대베트남 수출 12.2% 증가
- *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 26.0% → 25.0%로 1.0%p 감소한 반면 베트남의 비중 5.3% → 6.5%로 1.2%p 확대
- * 주요 품목의 대중수출 감소와 대베트남 수출 확대('15년 : '16년 1~11월, %) : 전자집적회로 : -15.4 : 67.2; 액정디바이스 -22.4 : 550.3; 전기음향/시각신호용 기기 -4.5 : 73.3; 전화기부품 -36.2 : -7.4 등

○ 우리 기업의 홍콩경유 대중 우회수출 역시 대중수출 감소의 한 원인

- * 대홍콩 수출의 80% 가량은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수출(홍콩무역국)
- * 올해 1~11월 대중수출 증가율 -10.9%인 반면 대홍콩 수출 7.2% 증가
- * 대중수출 비중 ('15년) 26.0% → ('16년 1~11월) 25.0%로 1.0%p 감소한 반면 대홍콩 수출 5.8% → 6.6%로 0.6%p 확대

<주요 수출품목의 대중-대베트남 수출실적 비교>

순번	품목		대중수출			대베트남수출('16년 1~9월)		
	품목명	HS 코드	수출액 (백만\$)	수출 증감률	구성비	수출액 (백만\$)	수출 증감률	구성비
	총계		89,667	-12.1	100.0	23,543	12.2	100.0
1	전자집적회로	8542	15,225	-15.4	17.0	3,084	67.2	13.1
2	액정디바이스	9013	9,090	-22.4	10.1	218	550.3	0.9
3	환식탄화수소	2902	4,719	-1.3	5.3	-	-	-
4	자동차부품	8708	3,474	-7.7	3.9	275	31.2	1.2
5	전기 음향/시각신호용기기	8531	3,135	-4.5	3.5	1,494	73.3	6.3
6	석유와 역청유(瀝靑油)	2710	2,828	9.5	3.2	961	38.5	4.1
7	전화기(부품)	8517	2,706	-36.2	3.0	3,118	-7.4	13.2
8	다이오드	8541	1,548	-11.9	1.7	378	74.7	1.6
9	반도체보울(boule)/웨이퍼	8486	1,418	-25.8	1.6	-	-	-
10	TV라디오 송수신기 부품	8529	1,416	17.5	1.6	893	272.0	3.8

자료 : 한국무역협회

II. '17년 대중수출 여건

※ (대중수출 결정요인)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국의 내수, △중국의 수출, △ 환경·제도 요인을 들 수 있음

☞ [참고] 한국의 대중수출 결정요인

- ◇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를 감안시 대략 3가지 요인이 대중수출에 영향
 - (중국 내수) 대중수출의 38% 가량('16년 상반기 기준)은 중국 내수공급용 수출이며 이 부분 수출에는 중국의 경기, 산업 및 정책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침
 - (중국 수출) 대중수출의 46% 가량은 중국내 가공후 재수출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수출(가공무역 수출)이며 가공무역 수출에는 글로벌 수입수요, 중국의 무역구조 등이 직접 영향을 미침
 - (무역 환경 및 제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무역 제도적 요인이 있음. 예를 들어,
 - (통상환경) 트럼프정권하에서 중미통상 갈등이 격화될 경우 우리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17년 발효 3년차에 접어드는 한중 FTA는 대중수출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음
 - (국제유가 동향) :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급락이 우리 대중수출 급락을 초래한데서 보듯이 유가동향은 향후 대중수출의 중요한 결정요인
 - (위안/달러) 환율 역시 수출단가 변화를 통해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침



* 설명 :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일반무역 수출(38.1%)과 재수출용 가공무역수출(45.6%)의 비중을 가리킴 ('16년 상반기 기준)

1. 경기 요인 : 산업 및 소비 수요

□ (중성장 지속) '16년 6.7%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17년에도 6% 후반대의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 '16년 3월, <13차 3개년 계획 보고>에서 향후 5년간 GDP성장 목표를 6.5%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중국사회과학원도 '17년 성장율을 6.5%로 전망

○ 앞으로 6% 후반대 성장을 수준의 내수용 수입수요 발생 전망

□ (산업별 동향) 산업별로는 3차산업, 소비재, 신성장 육성 대상 산업, 프로젝트 산업등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

○ 3차산업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산업비중도 급속 확대 중, 향후 가속화될 확대 전망

* 산업별 성장('16년 1~3Q, %) : 3차산업 7.6 → 2차산업 6.1 → 1차산업 3.5

* 3차산업 비중(%) : ('15년) 50.2 → ('16년 1~3Q) 52.8 → ('17년) 55.0(추정)

- 세부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기타서비스, 금융, 부동산, 도소매업 비중 확대

○ 제조업에서는 '인터넷 플러스(+)'관련산업*, '중국제조 2025'** , 소비재 업종***이 성장을 이끌 전망

* 정보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응용 비즈니스(전자상거래, 첨단 물류시스템, 인터넷 의료, 인터넷 교육, 인터넷 융합 등

**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생명과학 기술, 녹색 저탄소 업종, 고급 장비 및 소재, 디지털 혁신 분야의 장비 및 소재, 소프트웨어 등의 신흥 산업 및 항공해양, 정보네트워크, 생명과학, 핵기술, 농업기술 등 분야의 소재와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략산업

*** '스마트·안전·녹색·웰빙' 관련 소비재(식품, 화장품, 의류패션, 고급 가전, 환경 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신형도시화' 및 지역육성계획*,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와 관련 장비·설비·소재 투자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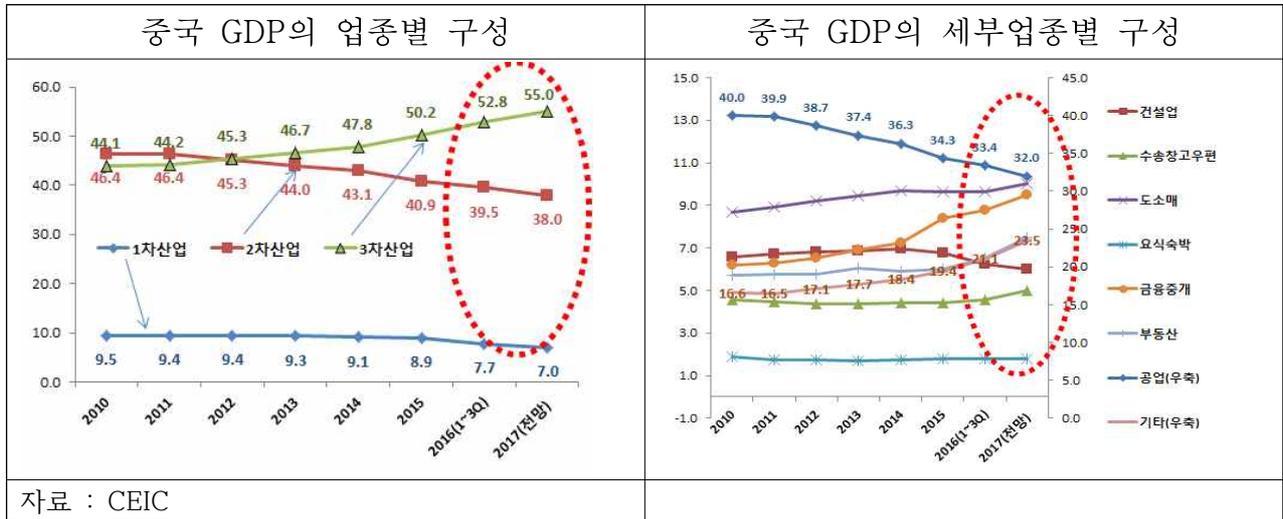
* '수도권개발계획', '장강유역 일체화 계획', '동북진흥계획' 등 지역경제 고도화 및 육성 강화 예정

**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주변지역 개발계획 적극 추진중이며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외국과의 공동진출 방안 모색 중

□ (대중수출 효과) 중성장 지속 및 신성장 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관련 업종의 대중수출 기회 확대 기대

○ IT·전자부품·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품목, 고급 소비재, 첨단산업 부품·장비·소재 등 분야 수출 기회 확대

<GDP의 업종별 구성>



<GDP 산업별 성과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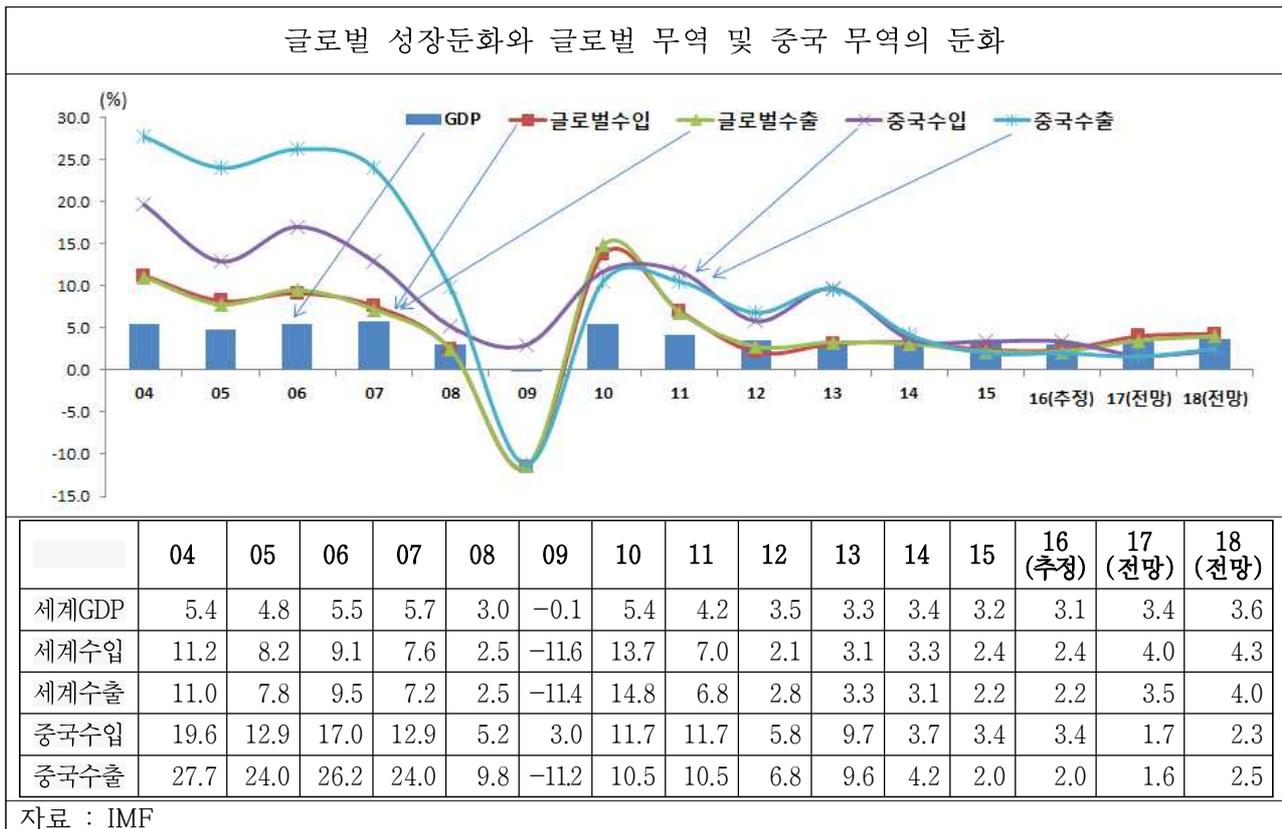
산업	2013	2014	2015	2016(1~3Q)	2017년(전망)
GDP	7.8	7.3	6.9	6.7	>6.5(목표)
1차산업	3.8	4.1	3.9	3.5	-
2차산업	8.0	7.4	6.1	6.1	±6%
공업	7.7	7.0	6.0	6.0	±6.0
건설	9.7	9.1	6.8	6.9	±7.0
3차산업	8.3	7.8	8.3	7.6	7.5~8.0
수송창고우편	6.6	6.5	4.6	5.3	±5.5
도소매	10.5	9.7	6.1	6.4	±6.5
요식숙박	3.9	5.8	6.2	6.8	±7.0
금융중개	10.6	9.9	15.9	6.3	±6.5
부동산	7.2	2.0	3.8	8.9	±9.0
기타	7.5	8.5	9.3	8.9	±9.0

* 자료 : 2016년까지는 CEIC, 2017년은 전년도의 추세를 감안해 자체 작성

2. 수출구조 요인 : 글로벌 수입수요, GVC 변화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무역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무역 둔화세가 두드러짐

- 2012년 이후 세계 수출입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하회하기 시작
- 특히 WTO 가입('01년) 이후 글로벌 무역을 견인하던 중국의 수출입이 '14년부터 급격하게 둔화되고 '15년부터 중국수출 증가율이 세계수출 증가율을 하회하기 시작
- 중국무역의 글로벌 무역 위상 둔화는 '07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IMF 전망)



□ 중국의 글로벌 무역 위상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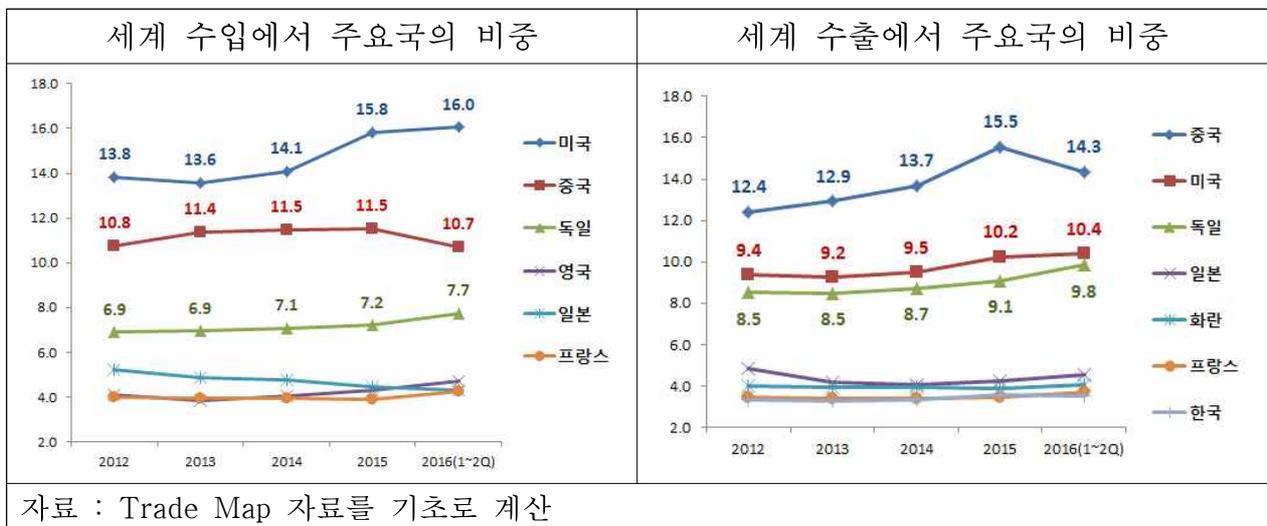
○ 중국 수출의 세계 수출 비중 ‘15년까지 확대돼 왔으나 ‘16년 들어 감소로 전환

* 중국 수출의 세계수출 비중(%) : (‘12년) 12.4 → (‘15년) 15.5 → (‘16년 1~2Q) 14.3

* 중국 수입의 세계수입 비중(%) : (‘12년) 10.8 → (‘15년) 11.5 → (‘16년 1~2Q) 10.7

○ 최근 수년간 중국 수출입 둔화세로 보아 앞으로도 중국의 세계무역 위상 지속 둔화 예상

○ 중국 수출입 둔화세 감안시 ‘17년 대중수출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호조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



○ (글로벌 생산기지 위상 약화) 더구나 베트남 등 대동남아 생산기지 이전 지속으로 대중수출 영향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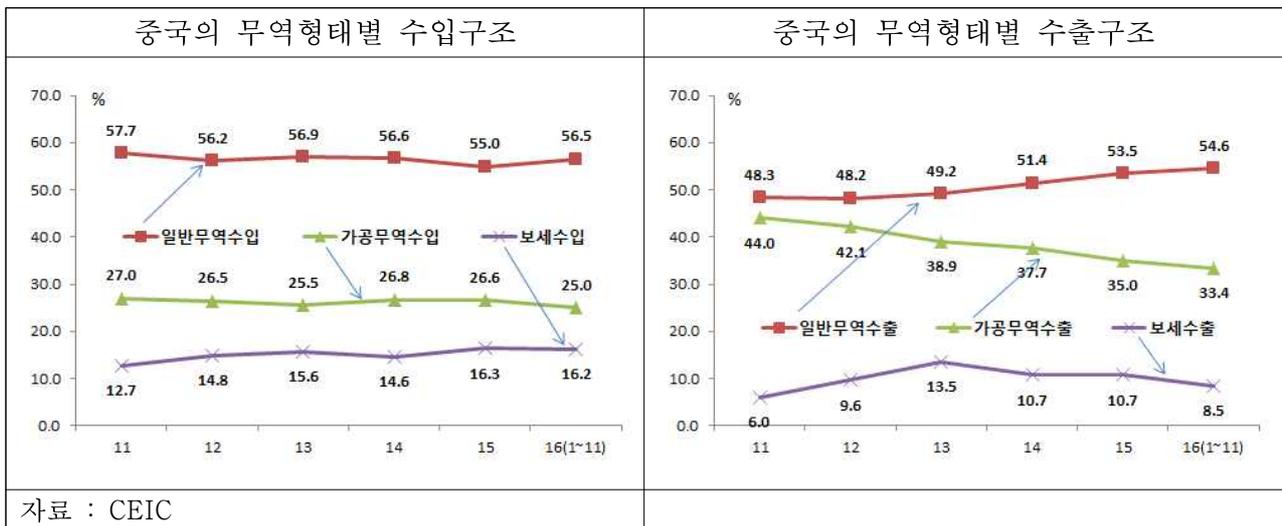
- 2016년에도 우리 주요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대중국 가공생산용 원부자재 수출의 베트남 전환 지속될 전망

* 대베트남 주요 투자프로젝트(16년 1~10월까지) LG 디스플레이 하이퐁(15억달러), LG이노텍 하이퐁(5.5억달러) 서울반도체 하남(3억달러) 삼성 R&D센터 하노이(3억달러), 짜빈성 풍력발전(2.4억달러), 태광산업 껀터(1.7억달러), 우영전자(1.3억달러), ALK VINA 타이응우웬(75백만달러), 동원베트남(60백만달러) 등

□ (무역형태) 중국의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세계의 공장’→‘세계의 시장’전환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

- 가공무역 수입 비중은 ‘11년 30% 이하로 내려간 뒤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일반무역 수입은 5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가공무역 비중 20% 중반대, 일반무역 55~57%대에서 안정세 유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역할 전환(‘세계의 공장’ → ‘세계의 시장’)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
 - 실제로 중국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추진해 온 가공무역 제한을 강화하기 보다는 가공무역 관련 가치사슬을 중국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가공무역의 수출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4.0%에서 32.2%로 11.8%p나 하락한 반면 일반무역 수출 비중은 7.6%p나 확대
 - 중국의 수출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줄어들고 일반무역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가공무역용 원부자재 수입수요 감소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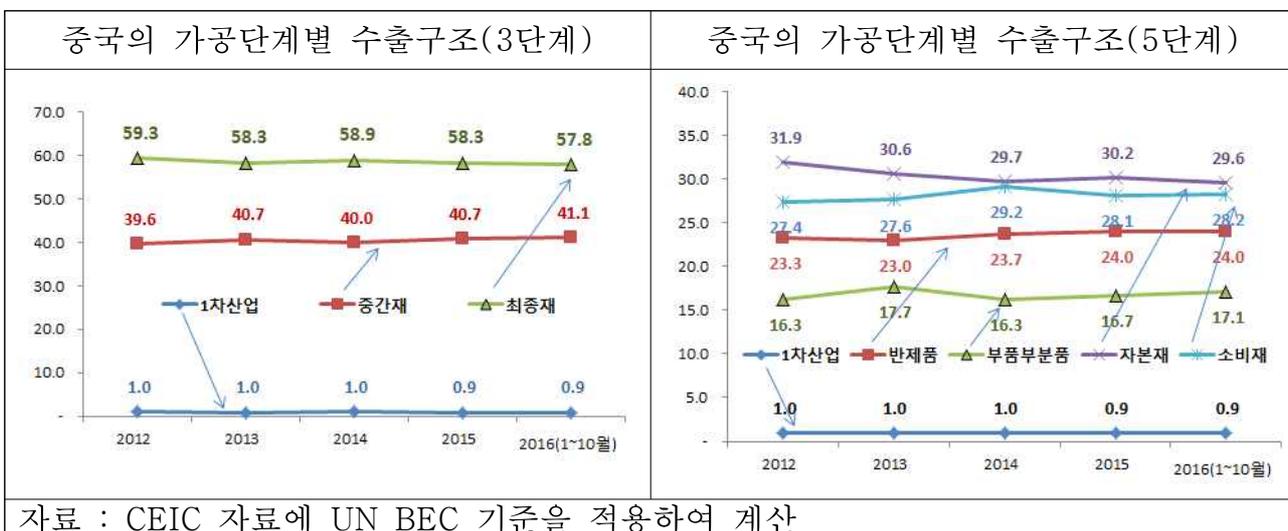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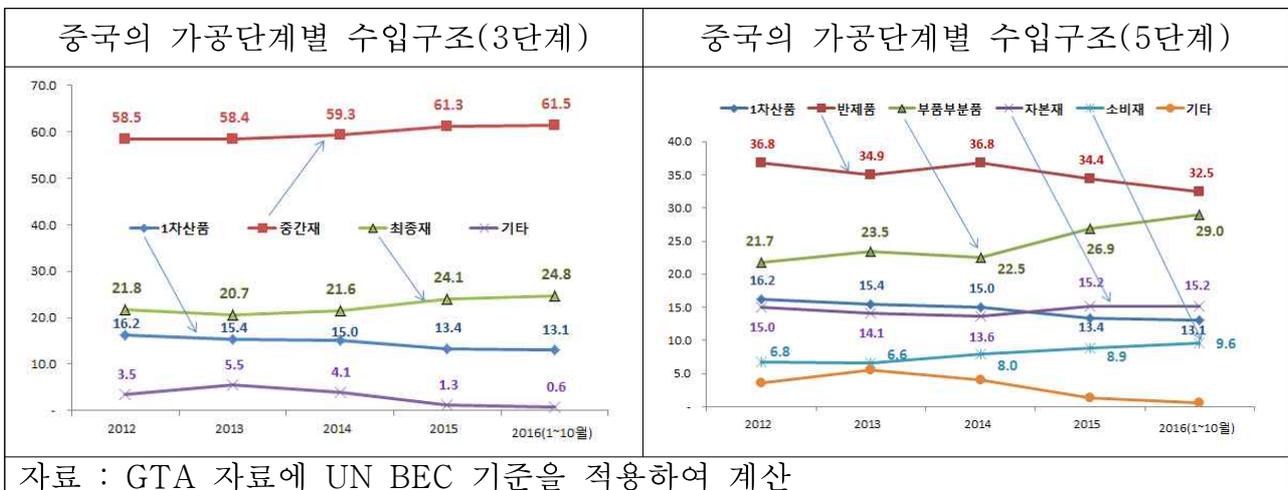
□ (가공단계구조) 가공단계면에서도 생산기지 역할이 소비중심 역할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의 수입에서 최종재, 특히 소비재와 중간재 가운데 부품·부분품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재 수출비중(%) : ('12년) 6.8 → ('16년(1~10월)) 9.6

* 부품·부분품 수출비중(%) : ('12년) 21.7 → ('14년) 22.5 → ('16년(1~10월)) 9.6

○ 반면 수출에서는 최종재('16년 1~10월) 57.8%), 특히 소비재가 매우 큰 비중을 유지('16년 1~10월 28.2%)



3. 환경·제도 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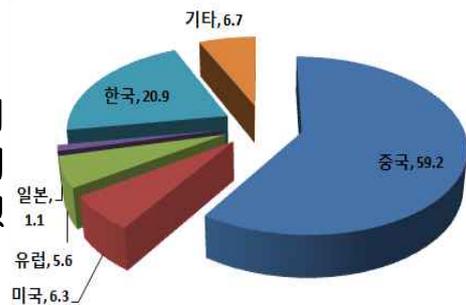
1) 통상환경

□ 중미 통상관계, 상호 견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 미국 이익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중미 통상관계 악화에 따른 우리의 대중수출 영향(표 참조)에 대한 우려 확대
 -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때부터 대중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조작 등을 이유로 대중 견제를 공언
 - 트럼프 당선자가 제시한 대중국 무역정책으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중국의 불법 보조금 제재(무역구제(상계관세)), 중국기업의 불법행위 제재, 불공정 무역행위 상시 감시 및 제재 등임(KIEP, <오늘의 세계경제>, 16-32(2016년))

☞ <참고> 대중수출과 중미 무역관계

- KOTRA 설문조사 결과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대한국 수입 원부자재가 중국내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중국진출 163개 업체;
(조사기간) '16년 11월 30일~12월 10일

- 한편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우리의 대중수출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5%로 나타남(한국은행,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와 미국의 보호주의가 우리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2016.12.7))

※ 우리나라의 대중수출품이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토착기업으로 공급되어 재수출되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도 크을 고려할 때 실제로 우리 대중수출품중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약 10% 전후)으로 추정

- 중국에 대한 보복 및 견제 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나 환율조작국 지정, 무역구제 조치, 다자기구에서의 협력, 경제협력, 통상협정* 등 중미간에는 다양한 통상 현안이 존재
 - * 중미 투자보장협정(BIT)으로 투자자유화,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2008년부터 협상 진행중
- 그러나 중미간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 통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환율조작과 보복관세 부과, 무역구제 조치 등은 기술적 한계와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강력하게 실시하기에 무리가 있음
 - *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중국은 환율시장화 개혁 추진, 최근 2년간 위안화 절하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 등을 들어 부당성을 지적
 - **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트럼프가 공언한 45% 징벌적 상계관세 부과의 경우 중미간 전면적 통상갈등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능성으로 쉽지 않음
 - 무역구제, 통상협정 분야에서 미국이 좀 더 공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으나 전면적인 관계 악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이외에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 미국이 통상공세를 일방적으로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결국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대중 통상공세 강화가 우리의 대중수출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파생효과 가능성은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미간 통상 갈등은 외교안보 분야로 확대되어 무역·투자 환경의 불안정 요인으로 될 수 있음
 - 미국의 환율조작 조사, 대중국 무역적자 분석 과정에서 한중간 분업구조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으로 주목 받을 가능성도 있음

<트럼프 집권 후 중미간 통상 현안 및 전망>

분야	내용	방법↔대응	기존정책 및 사례	전망
정책기초	미국 우선주의 - 보호주의 가능성	美, 보호주의(고립주의) 추진하되 현실 감안해 일방주의 순화	○ 美 포괄적 개입주의 속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 中, '신형대국관계 주장 속 '자국중심 통상네트워크' 추진	견제↔협력속 보호주의 강화 경향
환 율	'환율조작국' 지정	기술적, 현실적 여건(실익 및 중국의 보복) 고려	美, 지정제도 마련했으나 실시전례 없음	경쟁 및 견제 - 갈등(보복) 가능성은 제한적
무역구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 CVD, SG 불가능 ○ AD 제한적 지속	○ 반덤핑 지속 ○ 상계관세 09년 시도, 실효 별무	중국의 보복 및 MES 미부여 시도 - 실제 영향은 제한적
	'시장경제지위'(MES)	中 요구, 美 거부	中 요구, 美 거부	
다자 기구/협력	WTO, 다자금융기구*, G20, 다자협력**	협력, 일부 견제 및 이견	협력, 일부 견제 및 이견	협력과 견제 지속
경제협력	에너지源, 청정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산업표준 기업협력 등	협력 강화	협력 강화	협력 강화
통상협정	중미 투자보장협정(BIT)***	美 개방 요구, 中 신중 태도 à 타결지연	'08년 이후 16차 협상 지속, 중국 개방수준 시각차이로 지연	지연 가능성
	TPP	美, 폐기	美, 중국 배제하고 타결했으나 발효 포기	
	RCEP****, FTAAP*****	中 주도, 美 관망	中 주도, 美 관망	중국 주도 강화 - 협상 진전은 불확실

* IMF, AIIB(중국 주도), ADB(미, 일 주도)
 ** 반부패, 사이버안전, 에너지, 기후변화, 보건, 항공 및 해양보호등
 *** 투자자유화,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2008년 협상개시, 중국의 개방폭(네거티브리스트 범위) 문제로 지연중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태지역 16개국(아세안 10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미국 제외)가 참여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정식 협상 개시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AP) : 2006년 중국의 제안으로 논의 시작된 TPP와 RCEP를포괄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무역협정 논의. 중국이 주도하고 미국, 일본 등은 소극적

자료 : 자체 작성

□ 한중 FTA, 대중수출 촉진 역할 확대

- 한편, '17년 발효 3년차에 접어드는 한중 FTA의 한중 교류 촉진 효과 커질 것으로 기대
 - 발효 2년차(발효 1주년) 인 '16년 11월 기준 대중수출이 10.9% 감소했으나 한중 FTA 혜택품목의 수출 감소폭은 △4.0%에 머물러 한중 FTA가 대중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짐(산업부)
 - * 우리기업의 한중 FTA 활용율은 38.3%('16년 11월)로 같은 기간 한-인도, 한-아세안 FTA의 활용율보다 높게 나타남
 - 3년차 관세철폐안이 적용되는 '17년이 되면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중국이 우리의 수출경쟁국 및 주요 관련국과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어 우리의 중국 시장 선점효과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 우리의 중국시장 수출경쟁력인 대만과 추진중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한중일 FTA 협상이 부진해 중국의 대일본 시장개방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상대적 대중 수출 여건 지속 개선 예상
 - 시험인증절차 등 비관세장벽 FTA 후속조치의 본격 집행, 산업단지 및 지방경제협력 사안의 본격 추진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 분야 더욱 확대 예상

2) 국제유가 동향

○ 국제 유가 하락이 '14년 하반기 이후 대중수출 급감요인 중 하나였으나 앞으로 대중수출 둔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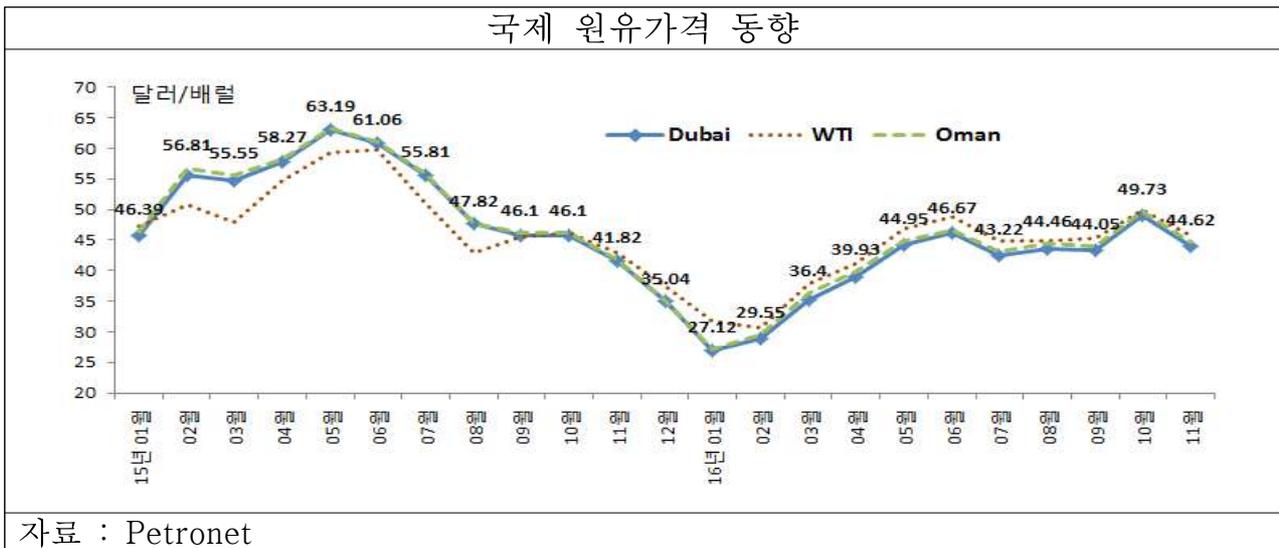
- '15년 이후 국제원유가 배럴당 30~60달러 선에서 완만한 변화를 보이며 안정세 유지

- 이에 따라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대중수출 '16년 들어 보합세 및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함

* 주요 관련제품 수출증가율(%) : 석유화학중간원료 ('15년)-13.9 → ('16년 1~11월) 0.7; 기초유분 -38.8 → -4.3; 석유제품 -36.9 → 2.9

○ 주요 유가전망기관들도 '17년 국제유가 상대적 안정세 유지 전망

* 미 에너지정보청(EIA) 유가전망(배럴/달러) : 서부텍사스중질유(WTI) ('16년) 43.07 → ('17년) 50.66; 브렌트유 ('16년) 43.46 → ('17년) 51.66



<국제유가 전망>

	WTI	Brent
2015년	48.67	52.32
2016년	43.07	43.46
2017년	50.66	51.66

* 자료 : 미 에너지정보청(EIA) 단기에너지전망(STEO) 보고서(2016. 12)

3) 환율

- '15년 7월 이후 절상세를 보이는 위안/달러 환율의 역시 대중수출에 영향 우려 확대
- (환율동향) '10년 5월 이후 완만한 절하세를 보이던 위안화 환율, '15년 7월 ~'16년 11월까지 16개월간 11.8%의 절상율을 기록중
- 대중 수출구조상 위안화 환율의 대중수출 영향은 제한적
- (영향) 우리 대중수출이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고 있고, 대중수출의 절반 가량이 중국내 가공후 재수출되는 가공무역이므로 위안/달러 환율 변동의 한국→수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음*
 - * 위안화 절상시 중국내 제조품의 제3국 수출에 유리한 반면 국내 제조품의 대중수출에 불리, 위안화 절하시 그 반대 상황 전개
- 특히 위안/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동조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 변동이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위안화 환율의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및 환율 급변동에 따른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 다만 위안/달러 환율 추이가 대중국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에 영향을 주게 됨을 고려하여 위안화 환율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 또, 중장기적 환율 추이 보다는 단기간내 환율 급변동이 대중 수출입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단기적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 * 수출 계약후 결제까지 대략 2개월내에 환율이 급등락 할 경우 수출입 업체의 수익에 직결되므로 환변동보험 등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

위안/달러 환율 동향(월간)



위안/달러 및 원/위안 환율 동향(일간)



자료 : CEIC

Ⅲ. '17년 대중수출 전망

1. 종합 전망

□ '17년 대중수출 급락세 완화 및 수출플러스 전환 가능성

- 상기 대중수출 여건을 종합하면 '17년 우리의 대중수출은 급락세에서 벗어나되 소폭 상승 가능성 있음
 - 대중수출 확대 가능성(+ 증가율 달성)은 어느 정도 있음
- 급락세 완화 및 수출확대 가능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중국 경기 안정세 유지, △무역구조 측면의 비관(수출 불리) 요인 확대, △환경 및 제도면의 낙관과 비관적 요인 혼재
 - (중국경기) '17년에도 6.5% 이상의 중속성장 유지되는 가운데 '인터넷+', 신성장산업, 소비재, 신규 투자프로젝트 확대가 성장률 견인 전망
 - (관련업종)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신성장산업(신에너지, 생명, 녹색, 핵, 농업, 첨단장비), 스마트·안전·녹색·웰빙형 소비재, 투자관련 인프라 및 관련제품 수요 확대 전망
 - (무역구조) 한중 및 중국 관련 무역구조 상황은 우리의 대중수출 확대에 다소 불리할 것으로 전망
 - (여건 변화)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의 수출 둔화, 차이나 인사이드 확대, 글로벌 생산거점의 동남아 이동에 따른 공급라인 변화 등
 - (환경·제도) 통상환경, 국제유가 등에서 불안정성과 기회가 교차될 전망
 - (통상환경) 중미 통상갈등의 대중수출 충격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불안정 가능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발효 3년차에 접어든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커질 전망

- (국제유가) 국제유가 하향 안정세 지속으로 대중수출 단가하락 압력 완화되고 관련품목 수출 일부 호전 가능성

<'17년 대중수출 종합 전망 요약>

구 분			전망 및 근거
종합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수출 급락세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요인) 중국의 안정 성장세 유지, 신성장전략 추진, 국제유가 안정, 한중 FTA 효과 확대, 기저효과 - (부진요인) 글로벌 수요 둔화, 밸류체인 변화로 중국의 수출 및 수출용 중간재 수요 둔화, 중미 통상갈등 가능성, 돌발적 이슈 대두 등
요인	주요변수	평가	내 용
중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율 ○ 산업생산 ○ 소비수요 ○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양호 다소양호 양호 다소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속성장 : '17년 6.5%, 중장기(13·5규획) 6.5%이상 ○ 산업생산 : 서비스 '인터넷+', 신성장산업, 소비재 생산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 : 기타서비스, 금융, 부동산, 도소매업 - '인터넷+' 유관산업 :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인터넷 - 신성장산업 : 신에너지, 생명, 녹색, 핵, 농업, 첨단장비 등 ○ 소비수요 : 스마트, 안전, 녹색, 웰빙 ○ 투자 프로젝트 : 신형도시화 및 지역발전계획*, '일대일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京津冀)개발계획', '창장(長江)유역 일체화계획', '동북진흥계획' 등
무역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VC 변화 ○ 현지조달 ○ 중국의수출 (글로벌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불리 불리 다소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무역, 특히 중국 무역 둔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부터 중국수출 증가율이 세계수출 증가율 하회 - 중국 수출입의 세계 수출입 비중 '16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세계수출 비중(%) : ('12년) 12.4 → ('15년) 15.5 → ('16년 1~2Q) 14.3 * 중국의 세계수입 비중(%) : ('12년) 10.8 → ('15년) 11.5 → ('16년 1~2Q) 10.7 ○ 차이나 인사이드 확대 : 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 비중 ('11년) 44.0% → ('16년 상반기) 33.4% ○ 글로벌생산 역할 감소(GVC 변화) : 생산거점 동남아 이전
환경 ·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관계 - 한중FTA ○ 국제유가 ○ 元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다소불리 유리 유리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 통상관계 : 충격가능성 적으나 불안정성 확대 - 한중 FTA : 발효 3년차, 중국 수입시장 경쟁력 확대 ○ 국제유가 : '14년 하반기 급락세 → 안정적 중저유가 단계 진입으로 단가하락 압력 감소 ○ 환율 : '15년 이후 환율 절하 심화로 중국 거시경제 불안정성 확대되었으나 대중수출 영향은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는 주시 필요

* 자료 : 본문 요약

2. 업종별 전망

□ 11개 업종* 가운데 양호 5개, 다소 양호 2개, 중립(보통) 3개, 부진 1개 업종으로 전망됨

* 편의상 업종으로 표기했으나 엄밀한 의미는 수출품목의 목적(용도)별 범주(category)임

- (전망 근거) 상기 대중수출 결정요인*을 업종별로 적용하여 종합
* 성장율, 중국의 수출, 중미 통상관계, 환율 등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인은 업종별 검토시 제외했음

□ (주요업종 수출전망) 6개 주요 업종의 수출을 전망해 보면(수출비중 순),

- (부품·부분품) 전자 및 기계부품으로 대중 수출의 45.6%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수출 전망은 중립

- (기대요인) 중국내 수요 확대 및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보유 등이 있으나,
- (우려요인) 반면 차이나 인사이드 확대, 베트남 등으로 생산거점 이전, 글로벌 수요 둔화 등 우려 요인도 있음

- (산업용 원자재) 대중수출에서 26.3%를 차지하며 석유화학제품, 철강, 비철금속 등으로 포함하고 수출 전망 다소 양호

- (기대요인) 국제유가 하향 안정에 따른 수출단가 안정, 중국의 수요 확대, 일부 FTA 효과 등은 수출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나,
- (우려요인) 중국내 투자 확대에 따른 자체 공급 확대는 우려 대상

- (기계·설비)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분야로 대중수출의 19.1%를 차지하며 대중 수출 전망 다소 양호

- (기대요인) 중국내 산업육성 및 투자 확대, FTA 효과 등 기대되나,
- (우려요인) 중국의 자체조달 확대는 수출 확대를 제약

- (운송장비용 부품·부분품) 자동차부품, 선박부품을 포함하여 대중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17년도 수출 전망은 **중립**
 - (기대요인) 대폭은 아니나 수요 확대 예상되는 반면,
 - (우려요인) 중국기업 생산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따른 차이나 인사이드 확대는 수출확대에 불리

- (식품) 소비용 미가공 및 가공식품을 포함하며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적으나 대중수출 전망은 **양호**
 - (기대요인) 중국의 수요 확대, FTA효과 등이 대중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반면,
 - (우려요인) 업종 특성상 비관세장벽 및 돌발이슈에 따른 충격 가능성에 노출돼 있음

- (소비재) 내구, 반내구, 비내구 소비재를 포함하며 대중수출 비중은 적으나(2.8%) 대중수출 전망은 **양호**
 - (기대요인) 중국의 소비수요 확대, FTA효과등이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반면,
 - (우려요인) 소비자의 반응(인식)과 비관세장벽이 중요하므로 비관세 장벽 및 돌발이슈 관리가 중요

<업종별 대중수출 성과와 전망 요약>

구분	업종*	BEC	2015		2016(1~11월)		수출 전망**
			구성비	수출 증가율	구성비	수출 증가율	
전체			100.0	-8.0	100.0	-9.7	중립 혹은 다소 양호 - 수출 급감 완화, 확대 가능성
1차산품	미가공 산업원자재	21	0.9	-9.4	0.9	-4.3	중립 - 소재경쟁력, FTA효과 - 단, 대부분 폐기 및 재활용품
산업용 원자재	가공된 산업원자재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등	22	25.4	-28.8	26.3	-4.3	다소 양호 - (기대) 단가안정, 수요 확대, FTA효과(일부) - (우려) 차이나 인사이드 확대
부품 · 부분품	부품·부분품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	42	45.2	6.5	45.6	-10.0	중립 - (기대) 수요 확대 - (우려) GVC·차이나인사이드 확대, 글로벌 수요 둔화
	부품·부분품 (운송장비용)	53	3.9	-4.9	4.5	3.7	중립 - (기대) 수요 일부 확대 - (우려) 차이나 인사이드 확대
자본재	기계·설비 (운송장비 제외)	41	21.0	-3.2	19.1	-18.2	다소 양호 - (기대) 수요 확대, FTA효과 - (우려) 중국 자체조달 확대
소비재	미가공 식음료	112	0.1	-10.8	0.1	43.4	양호 - (기대) 수요 확대, FTA효과 - (우려) 통상환경(비관세장벽) 불안정 가능(일부)
	가공 식음료	122	0.4	20.9	0.5	15.5	
	승용차	51	0.7	-38.3	0.1	-88.7	부진 - (우려) 현지생산 확대
	내구소비재	61	0.5	-6.2	0.4	-18.8	양호 - (기대) 수요 확대, FTA효과 - (우려) 통상환경(비관세장벽) 불안정 가능(일부)
	반내구소비재	62	0.7	11.4	0.7	-1.3	
	비내구소비재	63	1.2	31.3	1.6	11.1	

* 업종설명 : 구분기준은 UN에서 공표한 품목분류기준(Broad Economic Categories(BEC))에 따르되 분야당 수출 비중이 0.5% 이하는 제외(미가공 산업용 식음료(111), 미가공 연료 및 운할유(3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121), 석유제품 및 운할유(322), 산업용 운송장비(521) 등, 소비재 분야는 모든 세부 업종 명기)

** 전망 평가 척도 : 수출 전망은 불확실성이 크을 감안해 전망 수준을 수치가 아닌 5개 척도(양호, 다소 양호, 중립, 다소 불리, 불리)로 제시함

IV. 시사점과 대중수출 확대 방안

- (업종) 中 산업정책 환경 변화 속, 부상하는 유망품목 발굴 및 품목 다변화
 - 대중수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고급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T 부품소재, 첨단기자재, 환경설비 등 수요증가, 이에 따른 품목 다변화 노력 필요
 - 무역구조, 경제동향(산업, 시장, 정책) 감안시 **유망 업종**

분 야	업 종
‘인터넷플러스(+)’ 관련 업종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신성장산업 관련 부품·설비	신에너지, 생명, 녹색, 농업, 첨단장비 등
소비재	스마트, 안전, 환경, 웰빙 분야, 유아 관련 제품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프라 및 장비·기자재, 소재, 소프트웨어 등

□ (방법) 유망분야에 적합한 수출 및 진출 전략 모색 필요

- 수출 및 진출 유망 업종마다 목표 고객이 다르고, 활용 수단과 자원도 다름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 및 진출 전략의 예를 들면,
 - 전자상거래(역직구) 전략 : 부피가 적고 ‘한국산’제품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미용 및 생활밀착형 소비재가 유리하며,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일반무역을 혼용하는 전략 등 진출 방법을 혼용·융합하는 전략*도 필요
 - * 예) 일반무역으로 수출후 중국내 온라인 판매하는 방안, 온-오프라인 혼용 (O2O) 등
 - FTA 활용 확대·심화 : ‘17년 한중 FTA 발효 3년차에 접어들게 되어 우리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가 더욱 커지고*, 비관세장벽 완화 기회 활용 등 FTA 활용 전략도 더욱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됨

* '17년 3년차 관세철폐 프로그램이 적용되게 되며(기존 10% 관세를 10년 철폐할 경우 7% 관세 적용), 이에 따라 그동안 아태무역협정(APTA) 등 한중 FTA보다 관세감면 혜택이 더 커서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한중 FTA 활용을 선택할 여지가 커지게 됨

- 전략적 협력 강화 : 전략적 신흥산업*, 프로젝트 관련 업종은 한중 정부간 협력 뿐아니라 정부-기업간·정부-정부간 협력이 전략적 파트너링, PPP, 한중 FTA 관련조항 활용등 다양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강화해야 함

* '중국제조 2025'계획의 10대 육성대상 업종, 5대 프로젝트 관련업종 등

* '일대일로' 계획, 수도권개발계획, '창장경제벨트계획', '동북진흥계획' 등

□ 통상 환경 변화 및 돌발상황 대응능력 강화

○ '17년에는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중미관계의 변화 가능성, 한국 대선과 관련한 돌발변수 발생 등 한중 경제관계에서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돌발적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경제주체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전략과 '국가브랜드'전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작성자

◆ 중국사업단 정환우 조사담당관



KOCHI자료 17-001

2016년 對中 수출 평가와
2017년 전망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7년 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중국사업단
(02-3460-7412)

ISBN : 979-11-6097-107-1 (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16년 對中 수출 평가와 2017년 전망